보도자료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 포 일	2025. 7. 24.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2025 경기도미술관 동시대 미술의 현장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개최		7	19	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전시 : 김현정 학예연구사 (031-481-7033) 홍보 : 유채린 학예연구사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개최

- 시인 김형영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예술적 성찰

▶ 경기도미술관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한 사운드워크, 버려진 연탄재를 재활용한 설치작품 신작 공개

▶ 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 등 기후위기 이후 미래를 상상하는 신작 소개

▶ 재생에너지(태양, 바람, 바다, 흙)를 재료로 연출된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소개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협력: 오픈 특강, 영화 상영 진행

전 시 명	2025 경기도미술관 동시대 미술의 현장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전시기간	2025. 7. 24.(목) ~ 2025. 10. 26.(일)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2,4, 지면층 내외부
전시부문	영상, 사진, 회화, 설치, 조각 등(전시작품 총 40점)
참여작가	김민정, 박선민, 박예림, 박형렬, 이지연, 이채원, 임희재, 오다교, 우주+림희영, 장진승, 정소영, 최가영, 한윤정, 더그 에이트킨, 대니 멜러, 아담 보이드, 올라퍼 엘리아슨, 카롤리나 카이세도 (아카이브) 김수진, 김해심, 임동식, 최운영 참여작가 총 22팀(국내 13팀, 해외 5인, 아카이브 4인)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7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5 동시대 미술의 현장’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 대변동의 시대를 함께 공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주제를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생태 미술 아카이브를 통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아우르는 초창기 활동을 보여준다. 아울러 경기도미술관이 위치한 화랑유원지 내 호수를 산책하는 사운드워크와 버려진 연탄재를 재활용한 설치작품,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후 위기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뮬레이션 게임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제목은 시인 고(故) 김형영(1944–2021)의 동명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신실한 믿음에 따라 시신을 기증하며 삶을 마무리한 시인의『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1992, 문학과지성사)는,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 시의 정서를 빌려, 인류가 초래한 재난을 회복하길 기다리는 마음과 동시에 그 소망이 점차로 사라짐을 직감하는 안타까움을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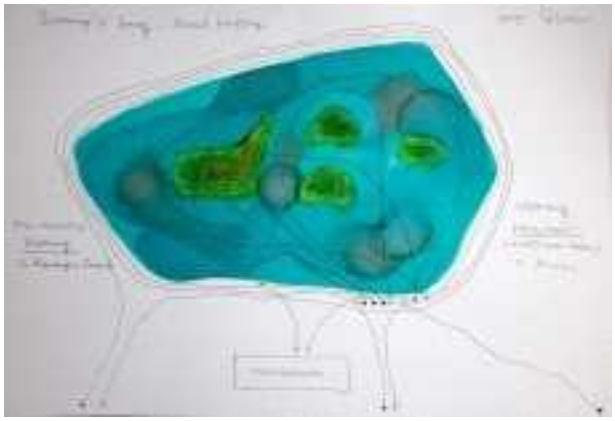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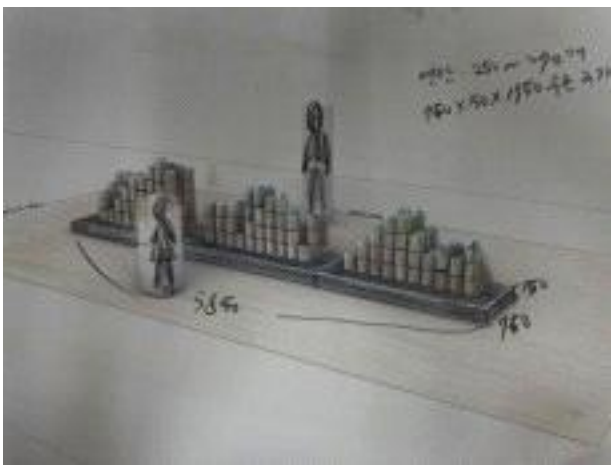
장진승은 기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신작을, 한윤정은 환경 데이터를 시각화한 디지털 미디어 작업을 선보인다. 박형렬, 우주+림희영, 최가영, 이채원은 인간이 자연에 남긴 폭력의 흔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수채화와 먹물을 통해 자연현상과 기후변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명한다. 또한 오다교, 정소영, 더그 에이트킨, 임희재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에서 감각하고 조응하는 작품을 제시하며, 박예림과 아담 보이드는 미래의 풍경과 존재를 상상하는 작업을 통해 인류가 마주한 실존적 위기를 다룬다. 카롤리나 카이세도, 대니 멜러, 김민정은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를 제안한다. 박선민은 전시장을 넘어 인도네시아 늪지대의 소리를 엮은 〈늪의 노래 – 사운드 드리프팅〉을 통해 관람객이 자연의 리듬을 감각하도록 한다. 이지연은 미술관 통로에 설치된 〈잿소리〉를 통해 버려진 사물의 예술적 순환과,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연탄 화분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경험하게 한다.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김수진(마감뉴스), 김해심(야투/바깥 미술), 임동식(야투 설립), 최운영(바깥 미술)을 중심으로 1980~1990년대 초반 활동했던 한국 생태 미술의 초기 작가와 집단의 아카이브도 함께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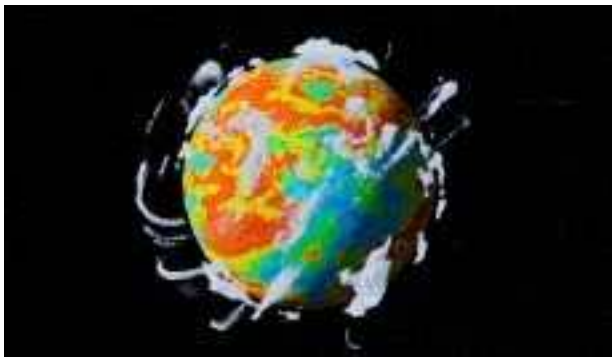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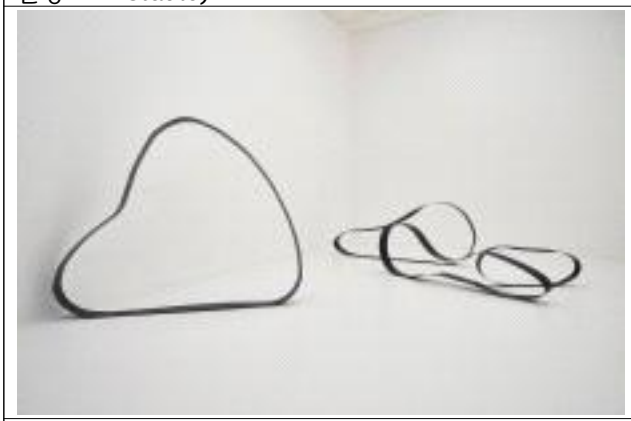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협력하는 주말 오픈 특강과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고, 전시 기간 내 상시 프로그램으로 재생지로 제작하는 기후 위기 책갈피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워크숍도 마련될 예정이다.

※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연계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전시 기간 중 경기도미술관 공식 누리집(https://gmoma.ggcf.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붙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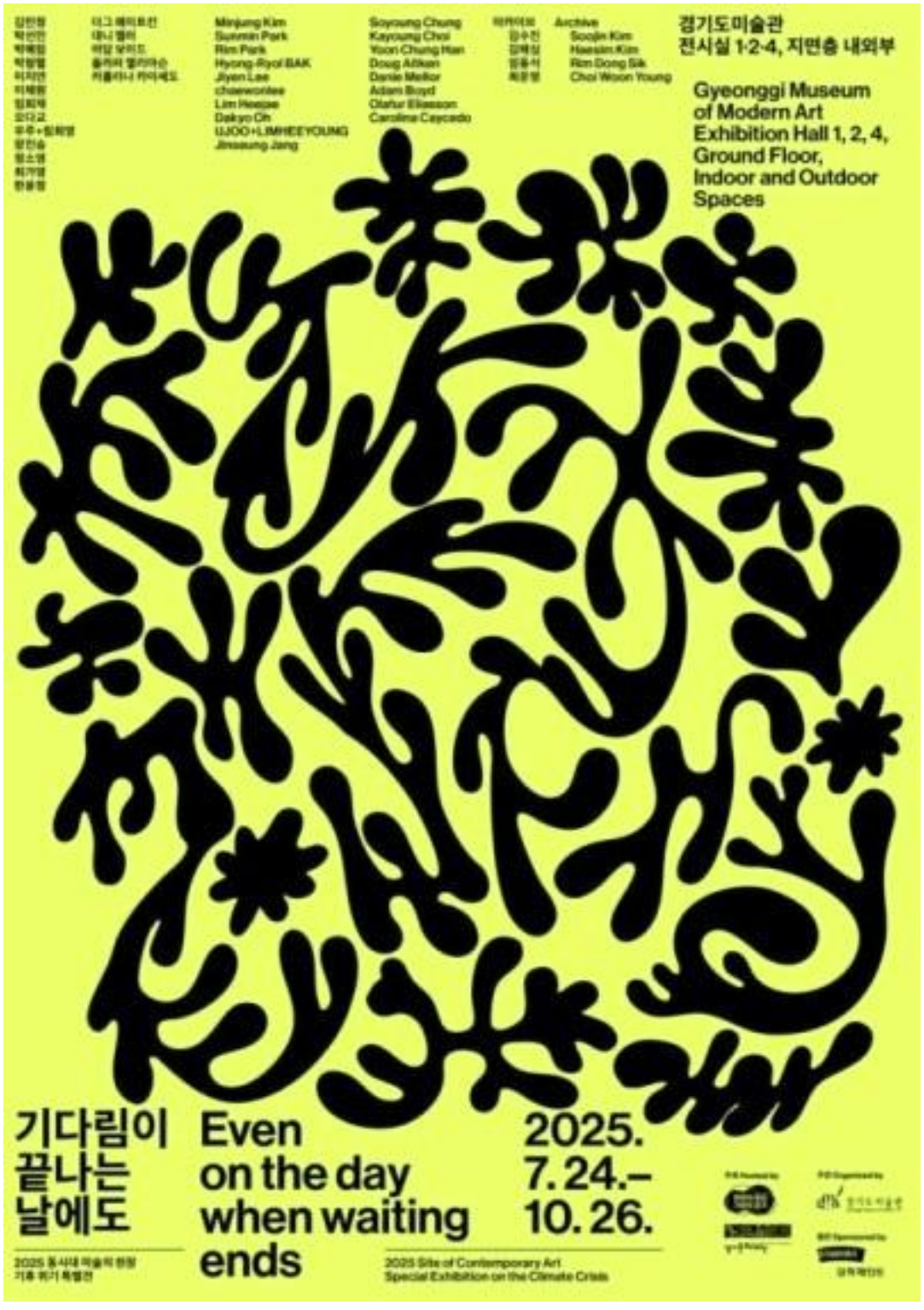
1. 대표 작품 이미지 [이미지 원본 별첨]

<table>
<tr><td> </td><td>  </td></tr>
<tr><td>김민정, 〈Mountain〉, 2022, 120x159cm, 한지에 유채, 수채, 갤러리현대 소장</td><td>박선민, 〈늪의 노래 - 사운드 드리프팅〉, 2025, 관객참여형 몰입 사운드스케이프, 26:21, 경기도미술관 커미션</td></tr>
<tr><td> </td><td> </td></tr>
<tr><td>박예림, 〈Mei〉, 2023, 한지에 유채, 안료, 폴리머 클레이, 자작나무, 248 x 81 x 5cm, 작가 소장</td><td>박형렬, 〈형상 연구_땅#41〉, 2014, 잉크젯 프린트, 144 x 180cm, 뮤지엄한미 소장</td></tr>
<tr><td>  </td><td> </td></tr>
<tr><td>이지연, 〈잿소리〉, 2025, 구운연탄 200장, 스테인레스 수조, 수중모터, 유리수조, 실리콘노즐, 가변 설치, 경기도미술관 커미션</td><td>이채원, 〈푸른 고양이와 사막〉, 2019, 캔버스에 아크릴, 91 x 116.8cm, 개인 소장</td></tr>
</table>

<table>
<tr><td> </td><td> </td></tr>
<tr><td>임희재, 〈박제_영양〉, 2022, 캔버스에 유채, 162.2m x 336.3cm, 작가 소장</td><td>오다교, 〈반영 Ⅰ〉, 〈반영 Ⅱ〉, 2022-2023, 마대에 모래, 숯, 안료, 각 194 x 131cm, 작가 소장</td></tr>
<tr><td> </td><td>  </td></tr>
<tr><td>우주+림희영, 〈Song from Plastic〉, 2022, 폐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스틸, 철, 모터, 전자장치, 음향장치, 인체 감지센서, 에나멜 도색, 가변설치 (기계장치 220 x 140 x 180cm), 작가 소장(사진 제공: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촬영: K2 studio)</td><td>장진승, 〈에어로스트라타〉(버전.0), 2025,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가변설치, 경기도미술관 커미션</td></tr>
<tr><td>  </td><td> </td></tr>
<tr><td>정소영, 〈굴러온 길〉, 2023, 철에 분채 도장, 수집물, 가변 설치, 작가 소장</td><td>최가영, 〈벤챠스의 하얀 대리석_Vukasin Stancevic으로부터〉, 2022, 캔버스에 아크릴, 150 x 130cm, 작가 소장</td></tr>
</table>

한윤정, 〈보이지 않는 바다〉, 2025, 5:31,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작가 제공	더그 에이트킨, 〈수중 파빌리온〉, 2017,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53,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Doug Aitken, Courtesy of the artist; 303 Gallery, New York; Galerie Eva Presenhuber, Zurich; Victoria Miro, London; and Regen Projects, Los Angeles.
대니 멜러, 〈암흑별 폭포〉, 2025,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5:10, 작가 제공	아담 보이드, 〈팰리세이드〉, 2024, 복합 매체(폴리에스터, PVC, 태피터, 면, 충전재와 실 소재 등을 이용해 자수 및 퀼팅 처리된 UV 프린트), 161 x 159㎝, 디스위켄드룸 소장
올라퍼 엘리아슨, 〈Methane matter〉, 2019, 종이에 수채, 인디언 잉크, 231.6 x 155 x 8㎝, PKM갤러리 소장(사진: Jens Ziehe)	카롤리나 카이세도, 〈이것은 물이 아니다〉, 2015,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25, 작가 제공

2. 전시 포스터 [이미지 원본 별첨]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전시 포스터

※ 2025 경기도미술관 동시대 미술의 현장 기후위기 특별전《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 동식물을 연상시키는 원초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형상들을 표현
-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Everyday Practice)

3. 전시 연계 프로그램

○ 상시 프로그램 〈기후 위기 책갈피〉

- 장소: 기획전시실 4 내 북 큐레이션 공간
- 내용: FSC(Forest Stwardship Council) 인증 모사지를 이용한 북마크 만들기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협력 오픈 특강 〈기후 위기, 문 앞에 마주한 질문들〉

일정	강연자	강의제목
8.9.(토) 오후 1시 30분 ~ 3시	홍수열(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8.30.(토) 오후 1시 30분 ~ 3시	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에너지 전환, 생각의 전환
9.20.(토) 오후 1시 30분 ~ 3시	구상모(KBS PD)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협력 영화 상영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

일정	영화	내용	비고
8.30.(토) 오후 3시 30분	히어 나우 프로젝트 The Here Now Project (2024) (상영시간: 75분)	전 세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통해, 기후 변화가 동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시 기간 중 전시 관람평 및 기후 행동 실천 다짐 공유 이벤트 진행

○ 참여작가 워크숍

- 박선민: 〈늪의 노래〉 사운드 드리프팅

일정	시간	장소	비고
7.27.(일)	오전 11시 (소요시간: 30분)	화랑호수 일대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
8.24.(일)			
9.21.(일)			
10.12.(일)			

- 이지연: 〈잿소리〉 전시 철수 워크숍

일정	시간	장소	비고
10.24.(금)	오후 2시 ~ 5시	1층 라운지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
10.25.(토)			

4.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 031-481-7000

gmoma.ggcf.kr

Facebook @ggmoma

Instagram @gyeonggimoma